

엔교지 절 조교도

엔교지 절의 미쓰노도(三之堂)로서 알려져 있는 세 건물의 남측에 위치하는 조교도(常行堂)는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는 금빛의 아미타여래를 모시고 있습니다.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신성한 무악과 그 외의 봉납에 사용되는 앞쪽의 무대입니다. 현재의 건물은 무로마치 시대(1336~1573)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불당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승려들이 부처의 이름을 외며 아미타상 주위를 계속 걷는 수행을 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어왔습니다. 이 수행은 식사와 짧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90 일 동안 계속되기도 하는, 즉 ‘행선(行禪)’입니다.

아미타여래상은 고전적인 명상 자세로서 이중 연꽃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. 눈은 반쯤 감고 있으며 손은 숙고를 나타내는 동작으로서 온화하게 맞대고 있습니다. 좁고 긴 켓불, 정수리 부분의 육계(숫아오른 부분) 및 나발(소라 모양의 머리카락)은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의 세공이며, 자비, 지혜 및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아미타여래의 머리 뒤에는 금빛의 광배가 있습니다. 광륜은 아미타여래와 그 양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,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을 상징하는 세 산스크리트 문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. 아미타여래상의 배경에는 아미타여래와 함께 극락정토에서 보라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중생을 구제로 이끄는 25 보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.

아미타여래상과 조교도는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.